제4강 세잔 : 감각적 리듬과 사물 Ⅱ - 작품분석

(0702_04)

▶ 작품을 통해 본 세잔의 철학

◎ 세잔의 그림들의 특징들

그림 1 Still Life with Compotier (과일정물)

▲ 형태왜곡

- 하얀 색의 과일 그릇이 받침대를 통해 하얀 식탁보와 연결.
→ 과일 그릇과 하얀 식탁보가 하나의 사물인 양 인식. 그 가운데 형성된 기묘한 균형.
⇒ 왜곡시켜 그림으로써 오히려 왼쪽의 과일 그릇이 오른쪽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음.

▲ 색들의 침투 : 감각의 리듬의 기본

- 벽의 색들이 물에 담긴 잔을 통과하면서 과일 그릇과 식탁보 전체에로 흘러들면서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공간으로 만들어 냄.
→ 사물들 사이 공기의 흐름을 파악. 허공의 농밀한 가벼움을 가장 친밀하게 끌어안는 능력을 발휘.
⇒ 색의 교환을 통한 감각적 리듬 속에서만 사물들의 지평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윤곽선에 의한 사물의 껍질들이 깨어지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사물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.

▲ 원근감

- 색채들이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부터 뒤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임.
→ 공간을 채우고 있는 대기의 존재를 잘 드러냄으로써 기하학적인 원근감 너머의 생동적인 원근감이 살아남.

▲ 사물의 중량

- 과일들 하나하나가 짙은 그림자들 속에 파묻혀 있는 듯 깊이 있게 표현돼 있으면서도 결코 짙은 검은 그림자들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.
→ 전체적으로 과일들이 각각 고유한 중량감을 한껏 드러냄. 색 감각의 리듬의 역할로 과일들은 식탁을 향해 아래로 내려 앉아 있는 듯 하면서 강한 중량감을 나타낼 수 있다.

▲ 윤곽선

- 윤관선을 두툼하게 표현.
→ 사물들을 한데 얽어매는 역할을 충분하게 함. 선을 색채의 대비를 통해 드러낸다.

www.artnstudy.com

▲ 사물

- 세잔이 표현하고자 했던 사물
→ 다른 사물들과의 지평적인 상호작용이 없이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사물.
→ 항상 전체로 녹아드는 듯 하면서 오히려 개개의 사물들이 뚜렷하게 살아나는 것. (세잔 그림의 역설)
⇒ 핵심은 색. 색채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생성되는 사물과 공간.

(0702_05)

그림 2 Woods with Millstone (물렛돌이 있는 숲)

▲ 더해진 중량감

- 사물들이 더 강렬하게 살아남.
- 황토색 톤으로 처리된 숲 속의 땅위에 짙은 그림자들이 놓여 있고, 그 그림자들이 오른쪽 중심을 향해 짙게 수렴됨으로써 숲의 깊이와 함께 이 그림자들을 만들어내는 나뭇가지들과 바윗돌들의 중량감이 살아남.

▲ 더욱 강해진 색 감각의 상호 반사에 의한 리듬

- 정물화와의 차이점 : 나뭇잎들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섞여 덩이져 있음
→ 나뭇잎들이 형태들과 색채들을 주고받는 힘이 너무나 강하다는 점을 표현.
- 나뭇가지, 바윗돌들에 숲 속 땅의 황토색 톤이 심하게 반사되어 묻어남.
→ 더욱 더 견고하게 보이는 사물들.

※ 메를로-퐁티, "각각의 사물은 모든 다른 사물들의 거울이다."

⇒ 사물이 그림자를 만들고 그 그림자가 다시 사물에 반사되어 나타나고, 하나하나의 사물에 다른 사물들의 색들이 반사되어 나타남.

그림 3 Le lac d'Annecy (에네시 호수)

▲ 정지속의 격렬한 운동

- 풍경화가 주는 신비감
→ 전혀 움직임이 없는 듯한 호수 풍경인데도 그 속에서 엄청난 요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.
⇒ 색감각의 리듬에 의해 생겨나는 운동성.

▲ 떨리는 사물의 윤곽 (Portrait of Vallier 발리에르의 초상)

- 사물들은 시각점을 달리 함에 따라 계속 새로운 모습을 나타냄. 따라서 사물이 양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의 선에 의해 뚜렷하게 칼로 자르듯이 그리면 안된다.
→ 떨림이 넘치는 선들의 구현.

www.artnstudy.com

그림 4 Le paysan (농부)

▲ 중량감

- 두터운 옷. 초점을 잃어버린 듯한 검은 눈. 회색톤의 사용.
→ 인간 역시 중량감을 지닌 묵직한 하나의 사물이다. 인간의 물성.

그림 5 Chocquet Seated (앉아있는 소케)

- 색 감각의 반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작품. 뚝뚝 떨어지는 붉은 색방울이 인상적. 초기작으로 화려한 색채를 통해 노골적인 색감각의 리듬을 표현하고 있다.

그림 6 Joachim Gasquet (조아생 가스케의 초상)

- 얼굴 하단을 야한 붉은 색조로 처리하고 상단을 회색 톤으로 처리한 것이 이채롭다.

그림 7 Portrait of Ambroise Vollard (볼라르의 초상)

- 사람을 먹어버린 듯한 톤

그림 8 The Drinker (취객)

- 이제 막 사물로부터 인간으로 되는 극적인 순간을 포착. (세잔 초상화의 특징)
- 세잔 초상화에서의 인간의 사물성이란, 인간의 근원과 겸손함을 드러내는 어휘이다.
- 배경의 색조가 인물을 뒤덮어 버림.
→ 풍경과 인간의 하나됨. 보이는 것과 보는 자인 인간의 동근원성을 표현하기 위함.

그림 9 Les grandes baigneuses (대수욕도)

- 세잔이 5년여에 걸쳐 그린, 가장 큰 그림.
- 색 감각의 대 향연.

▲ 용해되는 사물
- 제일 왼쪽의 여자-거대한 나무의 공간-수건-하늘

▲ 숨겨진 묘한 구도의 조화
- 오른쪽 나뭇가지-여자들의 배치가 사다리꼴 모양의 묘한 구도를 이룬다.
- 사다리꼴 구도상의 위태로운을 오른쪽 큰 나무둥치가 비교적 똑바로 서서 균형을 잡는다.
→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이고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일종의 변증법적인 구도를 구현함.

그림 10 Mont Saint-Victoire Seen from Les Lauves (로브에서 본 생-빅토와르 산)
그림 11 Le Mont Saint-Victoire vu des Lauves (로브에서 본 생-빅토와르 산)

▲ 색면의 향연

www.artnstudy.com

- 만년에 이르러 감각적인 리듬에 크게 심취한 세잔을 반영하는 두 그림.
- 부분을 떼어내면 그 자체로 하나의 추상회화가 된다. (형태들이 잘게 쪼개지고 여러 색조들로 재처리됨. 분석적 큐비즘의 원조)

▲ 색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사물의 생성

- 그 어떤 사물도 본질적으로 색채들의 향연들로부터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.
→ 색채들에서 사물들이 어떻게 막 생성되고 있는가 하는 그 근원적인 발생의 지점을 포착하고 있는 것.
⇒ **사물의 존재를 근원적인(또는 선험적인) 발생학의 관점에서 포착**하고 있는 것. 사물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가시적 관계를 표현.

※ 세잔 연보
1839 엑스 앙 프로방스에서 태어남.
1861 파리 첫 방문 당시 엑스로 되돌아 옴.
1862 그림 공부를 위해 파리에 정착함.
1863 그의 아버지의 초상화와 아쉴 랑페레르의 초상화를 그림.
1869-1870 엑스와 에스타크에 머묾.
1872-1873 피사로와 함께 오베르에 머묾.
1877 인상주의자들과 함께 '정과 그릇', '목욕하는 사람들', '소케의 초상'을 전시함.
1895 볼라르 집에서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함.
1904 살롱 도톤드에서 회고전.
1906 엑스에서 사망.

www.artnstudy.com